

## 21세기 실업계 고등학교의 발전 방향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세계화의 가속화와 새로운 지식·정보 및 기술의 급속한 팽창으로 인하여 산업구조 및 직업구조가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고, 고용 및 업무 추진 방식에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은 크게 사회·정치구조를 변화시키는 지식의 역동성, 세계화, 정보화, 일의 형태·기회·내용의 변화, 문화적 범위와 사회생활 양식의 증척 등과 같은 전반적인 사회·경제·문화적인 변화로 인하여 촉진되고 있다. 또한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의 생산, 가공, 분배 활동을 좌우하는 인적자원이 국가의 생산력과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다.

따라서 새 천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직업교육은 첫째, 실용주의적 교육관을 확립하고, 둘째, 사회변화에 따라 직업교육의 이념 및 체제를 재정립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직업교육 행정을 강화하고, 셋째,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의 내실화와 우수 직업기술교사의 확보를 통하여 질 높은 직

업교육을 실시하며, 넷째, 산업체와 학교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한 산학협동 교육을 강화하고, 다섯째, 국민의 평생 직업교육능력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건전한 직업의식을 고취시키는 등의 방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사회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고등학교 직업교육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과거 실업계 고등학교는 경제발전을 위한 인력을 양성해 왔지만, 최근 입학 학생 자원의 부족, 고등교육 기회 증대, 산업계 변화에 대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대응 능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첫째, 우리 나라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정책은 주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 산업 및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른 산업인력의 공급과 정치적 필요성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기회 등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 즉,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은 학생이나 학부모



이무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또는 교육적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교육 외적인 필요에 따라 교육정책이 결정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이나 소질보다는 중학교 성적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의 수학능력이 저조하게 되었고,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가 감소되었으며, 중도 탈락생도 증가하였다.

셋째, 직업교육의 축이 전문대학으로 바뀌면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 지원이 감소되었고, 그 결과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 여건이 악화되었다.

넷째, 사회적으로도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자의 사회적 위상이 저하되었고, 고등학교 교육체제의 선별 기능 약화로 인하여 직업교육의 위상이 악화되었다.

학생들이 다양한 일의 세계를 탐색·선택하도록 하고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직업능력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은 실업계 고등학교가 담당해야 할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이러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역할 및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수행되어야 한다.

첫째,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능력에 맞게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현재의 실업계 고등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통합고등학교 등의 다양한 직업교육체제로 전환한다.

둘째, 기존의 실업계 고등학교 중 우수한 학교는 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셋째,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희망에 따라 계속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고등학교 직업교육 체제를 다양화한다.

넷째,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역점을 두고,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폭넓은 기초지식과 기술, 산업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전이능력, 그리고 일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형성 등을 위한 중핵 교육과정을 중요시해야 한다.

다섯째, 평생교육차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수를 다양화하고, 학생수준에 따라 효과적인 교수법을 개발·적용하도록 장려한다.

여섯째, 일관된 직업교육 정책과 함께 직업에 대한 국민의 가치관 변화 등 국민의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하며, 더불어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의 고용 관행제도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